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일 화요일 음 7월 14일 (6월)

기상정보

호리고 가끔 비



호리고 아침부터 산지와 남동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밤에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 낮 최고 기온은 30-31℃를 기록하겠다. 밤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clouds, and sea breeze.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Rows show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월드뉴스

24년간 썩지 않은 맥도날드 햄버거

감자튀김 말랐지만 '덜썩'

미국에서 24년간 썩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24년 된 맥도날드 햄버거.

폭스뉴스는 1996년에 만들어진 미국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의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현재까지도 썩지 않았다고 주장한 한 할머니의 영상이 화제로 떠올랐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할머니는 "24년 된 햄버거다. 만약 먹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다"며 다시 햄버거를 포장지로 고이 싸 넣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며칠 만에 300만을 넘었다.

그의 손녀로 추정되는 엘리 셔브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린 영상을 보면 이 할머니는 "웃장에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하얀색 종이박스를 열어 제조시기가 1996년이라 적힌 맥도날드 포장지를 보여준다.

이에 미국 뉴저지 럿거스 대학교 식품과학대학원의 도널드 사프너 박사는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익히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박테리아가 제거된다"며 그런 햄버거를 건조한 환경에 보관하면 수분이 제거돼 '미라'처럼 마른 상태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꺼내 보인 감자튀김은 바삭 말라보였으나 썩지 않았고, 햄버거 역시 표면은 멀쩡한 듯했다. 빵엔 곰팡이가 없었고, 고기 패티는 바삭 말라 얇긴 했지만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상추 등 야채는 모두 제거돼 있었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한라칼럼



우정애 교육학 박사

마음에 중점을 두는 오랜 역사에서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등의 모든 시도들은 마음에 접근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은 의식과 함께 흐르게 되는데 우리 생활에서 대인관계, 소통과도 밀접하게 관계된다.

우선 마음과 의식의 관계를 보면, 아름다움과 색깔은 눈이라는 감각기관 자체로 판단되지 않는다. 내가 눈을 가지고 있고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 곳'에 쏠리고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비로소 외부 대상이 눈에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나의 감각기관

마음이 가는 곳

눈을 담당하는 마음이 따로 있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를 의식이라고 하고, 의식은 감각기관으로서의 마음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마음 이야기를 하게 된다.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담자에게 가져오는 문제는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일'과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

특히 그중에서도 '사랑', 즉 관계, 소통 문제가 압도적 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다. 하지만 꽤 많은 대인 관계 문제에서 대인 관계 기술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바로 상대방이 나와 대화를 하고 싶은 동기, 욕구가 없거나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의 초점이 서로 다를 때이다. 우리가 나누는 의사소통은 말하는 자의 의도와 다르게 듣는 자의 주관적

해석이 작용된다. 그 사람의 관심사나 살아온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 자기의 상황을 절절하게 설명했지만 이를 듣는 자는 '절절함'으로 듣기보다 '자신의 것만 우긴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오해를 일으켜 갈등 관계를 만들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요소는 평소 상대와 지내온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편안하게 자주 만나는 사이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소통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소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과 그동안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마치 영화의 스크린 보듯 바라보면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게 된다. '나'를 보는 것이 우선되면 갈등 감정의 방향보다는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점에 서게 된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오해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상대방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가 실망이든, 이해이든 대화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장 믿고 지내는 가족관계일수록 마음의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있는지, 믿고 하니 하고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친할수록 상처받기 쉽고 그 상처가 아물기 어렵듯 가족관계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관심사에 반응하므로 말과 행동은 곧 그 사람이다. 그러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사과'가 필요한 것이겠다.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다.

말한 자의 의도와 듣는 자의 이해가 다르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 대화의 초점을 맞추려면 대화기술을 새로 익히기보다 상대방이 나와 이야기(접촉, 관계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확실한지, 즉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관계 개선의 시작이 된다.

열린마당

성 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 발



정순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장

'성 평등'은 무엇일까. 최근 성평등 정책관 성평등기획팀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혹자는 '성 평등=인권', '성 평등=여성-남성'이라고 하는데 아직 '성 평등'을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를 통한 많은 고민·실천 속에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그 출발점이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9월1~7일 '양성평등주간'이 될 것 같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기념주간이다. 그런데 양성평등주간은 처음부터 이러한 명칭으로 불렸던 것은

청탁금지법과 공직사회



양혜연 서귀포시 표현면사무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양성평등 유공자 포상 위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디딤돌상' 7명(개인 6, 단체 1)과 양성평등 유공자에 8명이 선정돼 9월 3일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는다.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의 틀로 가두고 재단하는 '젠더 박스'에서 벗어나, '다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를 실천하는 게 곧 '차별 없는 가정·직장·학교·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우리 모두 '일상에서의 성 평등'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첫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의 몇 가지 원칙과 금액 상한이 소폭 개정되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을 유지하고, 선물은 원·재료의 50%를 넘게 목적으로 한다.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것부터 청렴하게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에 따라 시민들도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Features: 120 years of history, 100% water-soluble, 15-3-5+ trace elements. Includes benefits like high storage stability and strong root effects.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products. Title: '농업인이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Lists products like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키위농가',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마늘농가', '감자농가' with their respective benefits and usage instructions.